

진안 수천휴게소 시범 운영 나선다

중대재해 예방 역량 높인다

SBS 예능 ‘우리동네 전성시대’ 진안군편 1부 방영 맞춰 주말부터 손님맞이

진안군 용담호변의 유휴 시설이었던 수천휴게소가 SBS 예능 프로그램 ‘우리 동네 전성시대’와의 협업을 거쳐 새로운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이번 주말 손님맞이에 나선다. 진안군은 사업비 19억 8,500만 원(지방소멸대응기금, 수자원공사 공모사업비 5억 원 포함)을 투입해 추진한 ‘용담호 탐방객 쉼터 조성사업·수천휴게소 시설개선사업’의 시설 개선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오는 15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천휴게소는 기존의 노후화된 유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용담호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자, 최근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겨냥한 반려동물 친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수천휴게소 주소는 진안군 용담면 수천리 542-24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SBS 예능 ‘우리동네 전성시대’(이경규, 영탁, 딘딘, 이원



진안군 용담호변의 유휴 시설이었던 수천휴게소가 SBS 예능 프로그램 ‘우리 동네 전성시대’와의 협업을 거쳐 새로운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이번 주말 손님맞이에 나선다.

일 등 출연)와 연계하여 추진됐다. 방송 제작 과정에서 도출된 출연진의 공간 활용 구상과 전문가 제안을 실제 리모델링 및 운영 컨셉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한층 매력적이고 완성도 높은 공간을 구현해냈으며, 시그니처 메뉴 또한 개발하여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총 3부작으로 기획된

진안군 편은 지난 8월 1부가 방영됐으며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시설 작동 상태, 방문객 동선, 반려동물 편의시설, 서비스 대응 체계 등을 점검·보완한 후 오는 9월 정식 개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협력

전춘성 진안군수,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과 논의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12일 법무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행정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외국

전문기관 지정의 취지와 기관별 역할 분담, 지자체의 계절근로 업무 담당 인력 보강 필요성,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 방안, 사증발급신청서 신속 발급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협력 사항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진안군은 농촌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과 MOU

를 체결하고 2022년 155명, 2023년 390명, 2024년 551명, 2025년 771명, 2026년에는 98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E-8)를 도입하여 영농작기 안정적 농업경영 기반을 마련하여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고마운 일손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만큼 앞으로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영농작기 계절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농가도 근로자도 행복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민·관·군·경 합동 ‘을지연습’ 실시

장수군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2026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의 위기관리 능력과 비상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법정부 훈련이다. 첫날인 18일 ‘2026년 을지연습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장수군청 전 부서와 유관기관,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민간단체 등에서 300여 명이 참여한다.

훈련은 전시 전환 절차와 비상대비 계획을 점검하고, 재난 및 전시 상황에서 기관별 임무와 협업체계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을지연습 기간에는 상황별 도상연습을 비롯해 △현안과제 토의 및 예산편성 훈련 △공공 대비 민방위훈련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응 실재훈련 등이 실시된다. 특히 한누리전당에서 진행되는 ‘폭발물 테러에 따른 종합 대응훈련’에는 군·경·관·민이 합동으로 참여해 테러 발생 상황을 가정하고, 상황 전



파부터 주민 대피와 인명 구조, 현장 통제, 사태 수습까지 기관별 대응 절차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실시

무주군이 농번기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에 나섰다. 이번 수요조사는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파악하고 농가의 인력 수요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경영주와 결혼이민자가 참



주민들은 마을별 예비계획을 실현 가능한 기본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갈 파트너를 직접 선정했다. 운영사들이 주요 사업 경험과 강점, 주민 소통 방식 등을 소개한 뒤 마을별 주민들이 별도로 모여 협의하고 회당 운영사 1순위를 정해 동시에 공개 운영사 4곳이 참석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여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무주=손흥기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여름방학 진로캠프 성료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식)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한누리전당 및 군민회관 일원에서 지역 청소년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여름방학 진로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생 장수사랑 사회공헌사업단 멘토와 장수군청소년문화의집, 장수YMCA 등 지역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했다. 10일에는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전통연희백선극 ‘참군경’이 공연을 관람하며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자연스럽게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11일에는 군민회관에서 ‘제3회 청소년정책제안대회’가 개최됐다. ‘유치부터 고등까지 청소년이 꿈꾸는 장수교육공동체’를 주제로 학생들이 지역 교육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기웠다. 12일과 13일에는 중·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을 진행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홍삼축제 부스 운영자 사전교육 나사

진안군은 13일 진안군청 3층 강당에서 ‘2026 진안홍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원활한 축제 운영을 위해 부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진안홍삼축제는 홍삼판매관, 수삼판매관, 농산물판매관, 먹거리판매관, 간식판매관, 문화체험관, 홍보관 등 다양한 분야의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며, 이날 교육에는 총 89명의 부스 운영자가 참석해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유했다. 참가자들은 △부스 운영 수칙 △안전·위생 관리 △방문객 응대 방법 △가격표 게시 및 카드결제 △축제장 질서유지 등 축제기간 동안 반드시 준수해야 할 주요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특히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친절

한 응대와 바가지요금 근절, 쾌적한 부스 환경 조성 등 현장 중심의 운영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의 역사

전주매일 캠페인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키다

완주 · 진안 웅치전투

완주 · 진안 웅치전투(熊峙戰鬪)는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일본군의 전라도 진출을 막기 위해 현재의 전북 완주군 소양면과 진안군 부귀면 경계인 웅치(곰티재)에서 벌어진 전투이다. 1592년, 일본군은 금산을 점령한 뒤 전주로 진격하려 했다. 이에 김계군수 정담, 나주판관 이복남, 의병장 황박, 해남현감 변응정 등이 관군과 의병을 이끌고 웅치에서 방어에 나섰다. 웅치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치열하게 저항했지만, 일본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정담 등 많은 장수와 병사들이 전사했다. 전투 직후 일본군이 잠시 고개를 점령했으나, 이어진 안덕원 전투 등에서 조선군이 반격하면서 결국 일본군은 금산으로 퇴각했다. 이 전투는 호남을 방어해 전주와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전투로 평가된다. 현재 웅치전적은 2022년 12월 30일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으며,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원, 총 23만2,329㎡(완주 13만3,000㎡, 진안 9만9,300㎡) 규모다.

**본 배경은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